



우스잔 산



도야코 호수



쇼와신잔 산

도야코 우스잔 지오파크
洞爺湖 有珠山 Geopark

지오파크 (Geopark)



지오파크란 학술적으로 경관적으로 귀중한 지질유산을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보존하고, 그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자연공원을 말합니다.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의 3대 자연환경 보전체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과 생물권 보전지역과는 뭐가 다르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차이점은 '활용'면에 있습니다. 세계유산과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산의 보전이 목적이지만 지오파크는 유산의 보전만이 아니라 활용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형과 지질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유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장려합니다.

2004년에 설립된 세계지오파크네트워크에는 현재 27개국 90곳이 지오파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제주도가 지오파크로 지정되었으며, '지질공원'으로 번역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총 3곳의 지오파크가 있는데 그 중 홋카이도의 도야코 호수와 우스잔 산 지역 일대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에 지오파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

홋카이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칼데라 호수인 도야코 호수. 그리고 그 남쪽에 위치하며 현재도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는 활화산인 우스잔 산. 이 호수와 산의 빼어난 절경과 가치가 인정을 받아 이 일대가 2009년 8월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야코 호수가 탄생한 것은 약 11만년 전이고 그 후 1~2만 년전에는 우스잔 산이 탄생했습니다. 우스잔 산은 산정상의 분화로 산체 붕괴가 일어난 후 오랜시간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1663년부터 활동을 재개해 현재까지 총 9번의 화산활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스잔 산의 분화는 온천수가 용출된 1910년의 분화, 쇼와신잔 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1943-45년의 분화, 12000m의 연기가 피어오른 1977년의 대분화, 그리고 분화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2000년의 분화 등 여러번의 분화를 거처오며 화산학의 역사에 이름을 남겼고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 홈페이지

<http://www.toya-usu-geopark.org/> (일본어, 영어 대응)

「姜 교류원의 홋카이도 여행기 2」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 즐기기!



홋카이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도야코. 항상 온천을 목적으로 방문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랜만에 도야코를 찾았습니다.

도야코까지는 삿포로역에서 전차를 타고 약 100분 정도 가야합니다. 도야코역에 내리니 이곳이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여기저기 붙어있는게 눈에 띕니다. 한국어로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써 있는 걸 보니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듭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눈에 덮힌 쇼와신잔 산이 바로 눈 앞에 펼쳐집니다. 쇼와신잔 산은 원래 보리밭이었던 곳이 1943~45년의 우스잔 산 분화로 인해 지반이 융기해서 생긴 화산입니다. 높이 약 400미터의 작은 산이기는 하지만 험없이 수증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스잔 산 정상에 올라 우스잔 산도 둘러보고 쇼와신잔 산도 내려다 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심해서 우스잔 산 정상에 오르는 로프웨이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아쉽지만 계획을 변경해 로프웨이를 탑승하는 역 안에 있는 '화산촌 정보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 Part1. 화산을 보고 배우자 ◆◆

첫번째 목적지는 쇼와신잔 산(昭和嶽山)과 우스잔 산(有珠山).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도야코역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도야코온천 버스터미널까지 간 다음, 쇼와신잔행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승차 시간은 각각 15분 정도 소요되며 두 곳 다 종점이기 때문에 버스시간만 잘 맞추면 별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

도야코온천 버스터미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관광 팸플릿도 다수 구비되어 있고 인터넷도 사용 가능하므로 이곳에 들러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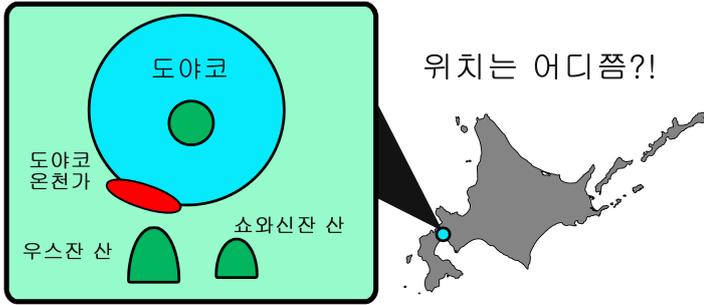


<우스잔 산 로프웨이>

쇼와신잔산록역에서 로프웨이를 타고 약 6분여를 올라가면 우스잔 산의 정상에 도착합니다. 전망대에서는 도야코 호수와 쇼와신잔 산이 내려다 보입니다.

<http://www.wakasaresort.com/usuzan/tenbou/index.html> (일본어, 영어)

<화산촌 정보관>은 지오파크에 대해 사진과 도표로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스잔 산과 쇼와신잔 산의 탄생과정, 그 중심에서 활약한 인물들, 지오파크로 지정되기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관을 둘러보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해설이 필요할 때는



‘화산 마이스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산 마이스터란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해설사를 말합니다. 현재 23 명이 화산 마이스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화산촌에도 화산 마이스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보관의 전시 내용만으로도 지오파크의 대략적인 면은 알 수 있었지만 모처럼 이곳까지 왔으니 화산 마이스터에게 해설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해설을 해주신 분은 정년 퇴직 후 화산 마이스터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이케타(池田) 씨. 스케치를 하고 글을 쓰는 게 취미시라는 이케타 씨는 본인이 그린 스케치를 보여주며 너무나도 재미있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쇼와신잔 산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라고?>

이케타 씨의 설명 중에 알게 된 사실! 보리밭이었던 땅이 용기해서 산이 된 쇼와신잔 산의 주인은 당시 이 지역 우체국장이었던 미마츠(三松) 씨라고 합니다. 미마츠 씨는 쇼와신잔 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전재산을 털어 산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 용기해 가는 과정을 매일 같은 장소에서 기록했고 그 기록은 ‘미마츠 다이어그램’ 이라고 해서 귀중한 학술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정보관은 10 분 정도만 투자하면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로프웨이를 이용할 때 꼭 한 번 둘러보기를 추천합니다.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화산 과학관>. 우스잔 산의 화산활동을 식물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화산 과학관은 도야코온천 버스터미널에서 도보 2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자 화산재를 뒤집어 쓴 소형 트럭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앞창문이 다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진 이 트럭은 2000 년 분화 당시에 피해 입은 것을 그대로 가져다 전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각변동으로 휘어진 선로와 무너진 도로 조각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니 화산 분화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느껴져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영상관에서는 2000 년 분화 당시에 실제로 촬영한 비디오와 사진을 편집해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2000 년 분화는 분화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9 번의 분화 중에 유일하게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분화가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우스잔 산을 일컬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화산’ 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상은 화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한국어로도 상영하고 있으니 이곳에 들른다면 꼭 보길 추천합니다.

★화산 과학관 홈페이지 <http://toyako-vc.jp/volcano/> (일본어, 영어)

◆◆ Part2. 지오파크를 즐기자 ◆◆

지오파크로 지정된 도야코 호수와 우스잔 산 근처에는 많은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온천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며 맛있는 먹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지오파크를 맘껏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이 지역의 체철 해산물과 농산물만으로 요리를 만든다는 ‘마즈마에야(松前屋)’를 찾았습니다. 그날 들어오는 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고 해 추천 요리를 부탁하니 요즘은 대구가 체철이라고 대구탕을 내주셨습니다. 통통하게 오른 대구살과 신선한 야채를 죽에서 국물에 넣어가면서 먹는 샤브샤브식의 대구탕은 입맛에도 딱 맞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 <http://www4.ocn.ne.jp/~matsumae/> (일본어)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서는 불꽃놀이를 보러 유람선 선착장 쪽으로 갔습니다. 온 좋게도 그날이 마침 도야코온천 겨울축제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8 시 반부터 불꽃놀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15 분간에 걸친 불꽃놀이는 바로 눈 앞에 쏘아올려지는 불꽃이 마치 나만을 위한 이벤트 같이 느껴져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불꽃놀이의 여운을 안고 숙소로 돌아와 온천으로 하루를 마무리~ 이번엔 묵은 곳은 산수이(山水)호텔이었는데 고풍스런 일본식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온천 욕탕이 조금 좁기는 했지만 사람이 얼마 없어서 여유로이 온천욕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는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너무 기대했던 말 트레킹을 하기 위해 ‘레이크 도야 라키’로 이동했습니다. 도야코 호수를 내려다 보며 말을 타고 달리는 설원~ 상상만으로도 너무 설레는데 실제로 체험해 보니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비용은 35 분 코스가 4750 엔으로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 http://www.mite-net.com/riibus/iburi_winter/horse/ (일본어)

이 지역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른다는 젤라또 가게 ‘레이크 힐 팍’. 말 트레킹을 마치고 간식으로 먹을 겸 찾았습니다. 이 가게는 매장 바로 옆에 목장이 있어서 그날 짜낸 신선한 우유로 젤라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배한 호박이나 허스카뚜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건 호박과 깨 젤라또. 젤라또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의외로 담백하게 맛있었습니다.



☆ <http://www.lake-hill.com/> (일본어)



마지막 일정은 도야코 호수 유람선. 온천가의 선착장에서 출발해 호수 안을 한바퀴 도는 코스는 1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호수 가운데는 나카지마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특이한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여름에는 유람선에서 내려 산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카지마를 산책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따뜻해지면 도야코를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 <http://www.toyakokisen.com/price/price03.html> (한국어)

이번 여행은 지오파크란 무엇인지 배우고,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를 둘러보며 즐긴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지오파크를 나름대로 정의해 보자면 ‘지질 유산이 있고, 이를 보전하며 활용해 나가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는 우스잔 산과 도야코 호수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보호하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도야코-우스잔 지오파크입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지사실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 +81-11-204-5114 FAX : +81-11-232-4303)